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2월 6일(월) 15시 : 기자촌 기록화 사업 편집 회의
- 2월 6일(월) 16시 : 3.13 전주 만세운동 사업 기획 회의

■ 연구원 소식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작일: 2023년1월16일(월)부터
- 기부금합산기간: 2022.01.01.~2022.12.31.

영수증 발급과 관련 수기 영수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속의 오늘

제국의 심장에 올려 퍼진 만세 소리 - 1919. 02. 08

일제강점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가장 위력적인 항일운동은 3·1운동이다. 들불처럼 한반도 전체와 해외에 있던 조선 민인들까지 함께 외쳤던 독립의 외침은 1919년 2월 8일의 2·8 독립선언이 없었다면 어찌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훗날 민족개조론을 발표하고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로 개명했지만 당시엔 조선 청년의 기개를 품고 있었던 이광수는 1918년 베이징 체류 중에 제1차 세계대전의 휴전, 민족자결주의, 윌슨 강령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중국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고 이광수도 조선 독립의 희망을 품었다. 파리강화회의에 중국대표 주정상, 구웨이준, 후웨이더 등이 베이징을 떠난 후 서울로 돌아온 이광수는 현상윤, 최린 등과 독립운동을 논의하였다.

유학생 학우회 기관지 '학지광'의 편집장이었던 최팔용은 일찍이 와세다 대학 동창회에서 이렇게 연설한 바 있었다. "무릇 국가 또는 민족이 멸망한다 해도 반드시 영구히 망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국가, 민족이 융성한다 해도 또한 영구히 융성되는 것은 아니다. 보라! 멸망의 길을 걷던 폴란드는 지금 독립이 되고, 천하에 위엄을 자랑하던 러시아 제국은 지금 망하지 않았는가?" 듣고 있던 조선 유학생들의 가슴에서는 불뚝이 튀었다. 그 연설은 더 이상 앓아서 뭉갤 수 없다는 청년들의 결기를 북돋운 신호탄이면서 무기력의 허공을 가르는 효시와도 같았다.

그런데 실행위원 중 전영택이 신병을 이유로 사퇴하자 북경으로부터 서울을 거쳐 동경으로 온 이광수와 김철수가 추가되어 11명의 실행위원이 먼저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한다. 이광수는 원문을 쓰고 영문으로 번역한 후 이후 최팔용의 권유에 따라 상하이로 피신하였다.

1919년 2월 8일 평소 눈을 만나기 어려웠던 도쿄에 눈이 펄펄 내렸다. 조선 유학생들은 이날 2시에 열린다는 학우회 총회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400여명의 유학생이 행사장인 조선 YMCA 강당으로 몰려들었다. 조선인 유학생의 김새를 눈치 채 일본 경찰들도 행사장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후 2시 학우회장 백관수가 개회를 선언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은 최팔용이었다. "긴급동회가 있습니다!"를 외치며 단상으로 올라간 최팔용은 모여 있던 조선 청년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만드는 선언문을 읽는다.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이미 일본 경찰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조선 청년들의 결기를 누를 수 없었다. 선언문은 유려하고도 당당했다. 3·1운동 선언문이 명문장이라고 하지만 2·8독립선언문이 보여준 결기는 또 다른 것이었다.

3·1선언문에서 "아아!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라고 읽혔던 비유대신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모든 자유행동을 취하면서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뿌릴 것이니 이 어찌 동양평화의 화근이 아닐 것인가?"라는 명징한 경고가 있었다. 또 3·1선언문이 공약 3장을 통해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는 어중간한 모습을 보였다면, 2·8독립선언은 "만일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포할 것이다."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최팔용이 목이 터져라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장소는 3·1선언을 위해 모였던 고급 식당의 방이 아니라, 일본의 수도 한복판이었다. 조선 학생들은 달려드는 일본 경찰들과 격투를 벌였다. 최팔용이 독립선언서를 외친 순간 10년 동안 참았던 소리가 가슴을 찢고 그날 내린 눈처럼 동경을 뒤덮었다. **"조선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1919년 2월 8일. 제국의 심장 도쿄 한복판에서 조선 독립 만세의 외침이 터졌다.